



연수회 직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뜨거운 반응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순회연수 성공리에 진행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산호세 등지에서 순회 연수를 개최하였다.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본 연수회는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한국 내 유명 스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첫 시도된 1차 순회 연수 강사로는 지난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학술회에서 가장 다시 듣고 싶은 강사로 추천된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이다.

지난 2월14일 서북미 지역협의회를 선두로 콜로라도 지역과 북가주 지역에서 순회 강의가 이어졌다. 서북미 지역 교영란 회장은 강용철 교사의 명성을 듣고 멀리에서부터 교사들이 참석하기를 원했다.

시애틀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인 오레곤 지역에서도 40여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강용철 교사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요청을 받아주어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며 지역이 활성화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샌프란

시스코 등지에서 개최된 이번 순회 연수에는 기존의 연수회보다 약 25-40% 증가된 교사 참여도를 보였다.

향후 8월에는 중부와 동부에서 순회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협의회 별로 서로 연결하여 원하는 강사를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여 순회 연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미영 총회장은 “여러 지역에서 좋은 연수회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이 더욱 역량 있는 교사로서 한인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앞장서기 바란다”는 부탁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만 총영사, 신주식 교육원장도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제공: 재미한국학교협의회〉